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상담효과에 관한 연구

이선희

동우대학 치위생과

색인 : 대학상담, 치위생과, 상담자

1. 서론

한국의 학생들에게 대학은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¹⁾,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준다. 대학생이 되면서 성인이 되며, 처음으로 자율성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발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진학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대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회의 급격한 변동까지 겹쳐서 이러한 문제들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²⁾. 갑작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자유와 자율이 부담스러우며, 여전히 학업성적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고, 졸업 후의 진로도 막연하며, 익숙하지 못한 생활과 환경의 변화, 사회의 새로운 기대와 자신들의 사회에 대한 사명감 등은 이들에게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³⁾.

오늘날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 되기보다는 졸업장을 얻기 위한 곳, 취업준비를 위한 곳, 나아가서는 의식화된 학생들의 투쟁을 위한 전진기지가 되고 있다³⁾. 대학생들은 스스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대학생들이 삶에 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우울, 불안, 무력감 및 좌절 등을 경험하고 있다⁴⁾.

대학생들의 고민 문제는 스트레스원에 대한 선행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체로 진로 문제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고, 다음으로 학업·성적 문제, 이성 문제, 성격 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6)}.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트레스원 또한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시험에 대한 걱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⁷⁾.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으로는 ‘친구를 만나서 대화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⁷⁾, 문제가 있어도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비전문가를 통

해서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대학의 상담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사이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⁸⁾, 일반적인 상담은 정상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⁹⁾.

상담내용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학업 문제, 교우관계 문제, 가정 문제, 비행 등 여러 종류이며, 문제의 심각도가 심해지기 전에 미리 문제를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는 예방의 기능을 많이 하게 된다⁹⁾.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인적 성장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 상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³⁾.

대학 상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이¹⁰⁾의 '중·고·대학에서의 전문적 상담현황', 김과 주¹¹⁾의 '대학생의 관점에서 본 "상담관계(Therapeutic Relationship)" 기대에 대한 연구', 류¹²⁾의 '대학에서 지역사회에 청소년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 상담 실태 및 서비스 요구도 조사', 곽¹³⁾의 '대학에서의 학생지도 방향', 설¹⁴⁾의 '우리나라 대학상담의 이론적 모형' 등이 있다.

그러나 국가시험이라는 당면과제와 졸업 후 취업에 관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¹⁵⁾, 치위생과 학생들의 상담 실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과 재학생들의 상담에 대한 인식, 기대감 및 효과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것을 토대로 상담의 필요성을 확대시키며,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조사는 지방에 소재한 3개 대학의 치위생과 1~3학년 학생 1,192명 중 단순임의추출법으로 28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이루어졌다.

2.2. 연구방법

본 조사는 2009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3개 대학의 1~3학년 재학생 중 28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준비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동기, 설문 문항에 대한 내용과 질문의 목적 그리고 기입 요령을 충분히 설명한 뒤 응답하도록 하여 총 28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충분한 7부를 제외하고 273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onbach α 가 학교 성적에 대한 자신감 0.59, 학업성적 향상에 대한 희망 0.50, 학업에 대한 교수의 영향 0.58, 학교 생활에 대한 상담 경험 0.53, 상담의 효과 0.90으로, 모두 0.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4.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설문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

표 1. 신뢰도 검증

구분	문항 수	Alpha
학교성적에 대한 자신감	2	0.59
학업성적 향상에 대한 희망	3	0.50
학업에 대한 교수의 영향	4	0.58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경험	2	0.53
상담의 효과	7	0.90

하였으며, 학생들의 학교상담 실태와 학업성적 및 상담효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과 t-test(검증), 그리고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를 실시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총 273명 중 학년별로는 1학년과 2학년 34.4%, 3학년 31.1%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1~25세가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8~20세 34.4%, 26~30세 6.2%, 31~35세 0.7% 순으로 나타났다. 주소지별로는 중소도시가 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대도시와 농어촌은 20.1%였다. 사회생활 경험 유무별로는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학생이 74.0%로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학생 26.0%보다 많았다.

졸업 고교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학생이 72.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실업계열 24.9%, 예체능계열 1.8%, 기타 0.4% 순으로 나타났다. 치위생과 진학동기별로는 취업이 잘 되므로 4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직이므로 20.9%, 주위의 권유 18.7%, 적성에 맞아서

7.0% 순이었다. 성적별로는 보통인 학생이 61.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부진한 학생이 19.4%로 우수한 학생 18.7%보다 약간 많았다. 공부를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별로는 공부 방법은 아는데 실천을 못해서 2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부하기 싫어서 27.8%, 공부 방법을 몰라서 20.9%, 공부를 잘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9.5%, 적성에 맞지 않아서 7.7%, 학교생활에 적응이 안 돼서 5.1% 순으로 나타났다.

3.2. 학업성적 및 상담효과에 대한 인식

3.2.1. 학업에 대한 교수의 영향

1) 학업에 대한 교수의 영향 수준

학업에 대한 교수의 영향 수준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이 평균이 '수업방법에 따라 학업성적에 영향을 받는다'가 4.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수의 전공 지식도는 그 과목 공부에 영향이 있다' 4.16, '교수의 인간적인 자질에 따라 그 과목 공부에 영향이 있다' 3.88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의 외모(이미지)에 따라 그 과목 공부에 영향이 있다'가 2.84로 가장 낮았다.

2) 학업에 대한 교수의 영향

학업에 대한 교수의 영향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79로,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교수의 영향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학년과 연령,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년	1학년	94	34.4
	2학년	94	34.4
	3학년	85	31.1
연령	18~20세	94	34.4
	21~25세	160	58.6
	26~30세	17	6.2
	31~35세	2	0.7
	36세 이상	-	-
주소지	대도시	55	20.1
	중소도시	163	59.7
	농어촌	55	20.1
사회생활 경험 유무	유	71	26.0
	무	202	74.0
졸업 고교 계열	인문계열	199	72.9
	실업계열	68	24.9
	예체능계열	5	1.8
	기타	1	0.4
치위생과 진학동기	주위의 권유	51	18.7
	취업이 잘 되므로	130	47.6
	합격 가능성이 높아서	5	1.8
	적성에 맞아서	19	7.0
	전문직이므로	57	20.9
	사회적 인식이 좋아서	4	1.5
기타	7	2.6	
성적	매우 부진	12	4.4
	부진	41	15.0
	보통	169	61.9
	우수	36	13.2
	매우 우수	15	5.5
성적부진 이유	적성에 맞지 않아서	21	7.7
	학교생활에 적응이 안 돼서	14	5.1
	학교와 교수님들이 싫어서	2	0.7
	공부하기 싫어서	76	27.8
	공부 방법을 몰라서	57	20.9
	공부 방법은 아는데 실천을 못해서	77	28.2
	공부를 잘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26	9.5
전체		273	100.0

표 3. 학업에 대한 교수의 영향 수준

구분	Mean	SD
교수의 외모(이미지)에 따라 그 과목 공부에 영향이 있다	2.84	1.17
교수의 인간적인 자질에 따라 그 과목 공부에 영향이 있다	3.88	0.92
교수의 전공 지식도는 그 과목 공부에 영향이 있다	4.16	0.78
수업방법에 따라 학업성적에 영향을 받는다	4.29	0.73
학업에 대한 교수의 영향	3.79	0.61

주소지, 사회생활 경험 유무, 졸업 고교 계열, 그리고 성적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2.2. 학교성적 상위권이 자신감 부여에 미치는 영향

학생들은 학교성적이 상위권이면 자신감이 생겨 좋을 것이라고 인식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4.41로, 학생들은 학교성적이 상위권이면 자신감이 생겨 좋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학교성적이 상위권이면 자신감이 생겨 좋을 것이라고 인식하였고, 2학년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2.56, p<.001$). 연령별로는 18~20세인 학생이 21세 이상인 학생보다 학교성적이 상위권이면 자신감이 생겨 좋을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16, p<.05$).

표 4. 학업에 대한 교수의 영향

구분	N	Mean	SD	t(F)	p	
학년	1학년	94	3.72	0.59	1.51	0.224
	2학년	94	3.78	0.64		
	3학년	85	3.88	0.59		
연령	18~20세	94	3.75	0.57	-0.74	0.460
	21세 이상	179	3.81	0.63		
주소지	대도시	55	3.92	0.68	2.90	0.057
	중소도시	163	3.79	0.55		
	농어촌	55	3.65	0.68		
사회생활 경험 유무	유	71	3.89	0.59	1.62	0.106
	무	202	3.76	0.61		
졸업 고교 계열	인문계열	199	3.81	0.56	0.84	0.403
	실업계열	74	3.73	0.73		
성적	부진	53	3.83	0.65	0.98	0.377
	보통	169	3.75	0.58		
	우수	51	3.88	0.67		
전체	273	3.79	0.61			

표 5. 학교성적 상위권이 자신감 부여에 미치는 영향

	구분	N	Mean	SD	t(F)	p
학년	1학년	94	4.70	0.56	12.56***	0.000
	2학년	94	4.21	0.83		
	3학년	85	4.31	0.71		
연령	18~20세	94	4.54	0.71	2.16*	0.032
	21세 이상	179	4.34	0.74		
주소지	대도시	55	4.58	0.66	2.65	0.073
	중소도시	163	4.33	0.77		
	농어촌	55	4.47	0.69		
사회생활 경험 유무	유	71	4.52	0.61	1.48	0.141
	무	202	4.37	0.78		
졸업 고교 계열	인문계열	199	4.41	0.73	0.07	0.947
	실업계열	74	4.41	0.76		
성적	부진	53	4.40	0.84	0.83	0.438
	보통	169	4.38	0.72		
	우수	51	4.53	0.67		
전체		273	4.41	0.74		

*p<.05 ***p<.001

3.2.3. 학교성적 하위권이 자신감 손실에 미치는 영향

학생들은 학교성적이 하위권이면 기가 죽고 자신감이 없어질 것이라고 인식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37로, 학생들은 학교성적이 하위권이면 기가 죽고 자신감이 없어질 것이다에 대해 그다지 높은 인식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계열별로는 실업계열 학생이 인문계열 학생보다 학교성적이 하위권이면 기가 죽고 자신감이 없어질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졸업 고교 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02, p<.05$).

3.2.4. 학업성적 향상 공부 방법 습득 정도

학생들이 학업성적이 향상되는 공부 방법을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83으로,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향상되는 공부 방법을 그다지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학업성적이 향상되는 공부 방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6.27, p<.01$).

3.2.5. 현재보다 학업성적 향상 희망 정도

학생들이 현재보다 학업성적이 더 좋아지길 원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4.63으로, 학생들은 현재보다 학업성적이 더 좋아지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낮은 학생일수록 현재보다 학업 성적이 더 좋아지길 원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4.98, p<.001$). 연령별로는 18~20세 학생이 21세 이상 학생보다 현재

표 6. 학교성적 하위권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N	Mean	SD	t(F)	p
학년	1학년	94	3.34	1.05	0.17	0.841
	2학년	94	3.43	1.19		
	3학년	85	3.34	1.15		
연령	18~20세	94	3.33	1.04	-0.43	0.670
	21세 이상	179	3.39	1.17		
주소지	대도시	55	3.53	1.25	1.00	0.371
	중소도시	163	3.29	1.13		
	농어촌	55	3.44	0.98		
사회생활 경험 유무	유	71	3.37	1.11	-0.03	0.974
	무	202	3.37	1.14		
졸업 고교 계열	인문계열	199	3.29	1.15	-2.02*	0.044
	실업계열	74	3.59	1.03		
성적	부진	53	3.51	1.19	0.97	0.379
	보통	169	3.30	1.13		
	우수	51	3.47	1.06		
전체		273	3.37	1.13		

*p<.05

표 7. 학업성적 향상 공부 방법 습득 정도

	구분	N	Mean	SD	t(F)	p
학년	1학년	94	2.78	0.88	1.08	0.342
	2학년	94	2.78	0.96		
	3학년	85	2.95	0.91		
연령	18~20세	94	2.69	0.87	-1.83	0.068
	21세 이상	179	2.91	0.94		
주소지	대도시	55	2.91	0.80	0.40	0.668
	중소도시	163	2.79	0.98		
	농어촌	55	2.87	0.84		
사회생활 경험 유무	유	71	2.93	0.92	1.04	0.297
	무	202	2.80	0.92		
졸업 고교 계열	인문계열	199	2.86	0.94	0.97	0.335
	실업계열	74	2.74	0.86		
성적	부진	53	2.47	0.85	6.27**	0.002
	보통	169	2.87	0.89		
	우수	51	3.08	1.00		
전체		273	2.83	0.92		

**p<.01

표 8. 현재보다 학업성적 향상 희망 정도

	구분	N	Mean	SD	t(F)	p
학년	1학년	94	4.84	0.40	14.98***	0.000
	2학년	94	4.65	0.63		
	3학년	85	4.36	0.69		
연령	18~20세	94	4.78	0.47	3.31**	0.001
	21세 이상	179	4.55	0.66		
주소지	대도시	55	4.73	0.53	0.94	0.394
	중소도시	163	4.60	0.64		
	농어촌	55	4.60	0.60		
사회생활 경험 유무	유	71	4.65	0.59	0.34	0.731
	무	202	4.62	0.62		
졸업 고교 계열	인문계열	199	4.65	0.59	0.97	0.334
	실업계열	74	4.57	0.66		
성적	부진	53	4.87	0.39	7.65**	0.001
	보통	169	4.62	0.60		
	우수	51	4.41	0.75		
전체		273	4.63	0.61		

p<.01 *p<.001

표 9.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 정도

	구분	N	Mean	SD	t(F)	p
학년	1학년	94	3.34	1.02	1.37	0.257
	2학년	94	3.11	0.99		
	3학년	85	3.25	0.91		
연령	18~20세	94	3.23	1.02	0.04	0.968
	21세 이상	179	3.23	0.96		
주소지	대도시	55	3.40	1.12	1.20	0.302
	중소도시	163	3.17	0.98		
	농어촌	55	3.25	0.82		
사회생활 경험 유무	유	71	3.35	0.99	1.22	0.225
	무	202	3.19	0.97		
졸업 고교 계열	인문계열	199	3.27	1.00	1.12	0.262
	실업계열	74	3.12	0.92		
성적	부진	53	2.87	1.04	7.38**	0.001
	보통	169	3.24	0.98		
	우수	51	3.59	0.78		
전체		273	3.23	0.98		

**p<.01

보다 학업성적이 더 좋아지길 원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31, p<.01$). 성적별로는 성적이 부진한 학생일수록 현재보다 학업성적이 더 좋아지길 원하였으며, 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7.65, p<.01$).

3.2.6.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 정도

학생들이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23으로, 학생들은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 그다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7.38, p<.01$).

3.2.7. 상담의 효과

1) 상담의 효과 수준

상담의 효과 수준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이 평균이 '상담은 향후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된다'가 3.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는다면 학업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 3.71, '상담은 전공에 대한 자신감 고취에 도움이 된다' 3.57,

'상담은 국가시험 대비에 도움이 된다' 3.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은 대학에 대한 자부심 확립에 도움이 된다'가 3.23으로 가장 낮았다.

2) 상담의 효과

상담의 효과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53으로, 학생들은 상담의 효과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이 상담의 효과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고, 2학년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상담의 효과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였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3.82, p<.001$). 연령별로는 18~20세인 학생이 21세 이상인 학생보다 상담의 효과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62, p<.01$).

3.3. 상담실태 및 상담희망

3.3.1.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경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지 5점 만점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이 전체 평균이 3.22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그다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상담의 효과 수준

구분	Mean	SD
상담은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	3.37	0.89
상담은 대학에 대한 자부심 확립에 도움이 된다	3.23	0.94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상담을 받는다면 학업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	3.40	0.94
공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는다면 학업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	3.71	0.91
상담은 전공에 대한 자신감 고취에 도움이 된다	3.57	0.93
상담은 국가시험 대비에 도움이 된다	3.52	0.96
상담은 향후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된다	3.91	0.88
상담의 효과	3.53	0.74

표 11. 상담의 효과

	구분	N	Mean	SD	t(F)	p
학년	1학년	94	3.83	0.65	13.82***	0.000
	2학년	94	3.33	0.79		
	3학년	85	3.42	0.65		
연령	18~20세	94	3.69	0.66	2.62**	0.009
	21세 이상	179	3.45	0.76		
주소지	대도시	55	3.66	0.82	1.85	0.159
	중소도시	163	3.46	0.73		
	농어촌	55	3.59	0.65		
사회생활 경험 유무	유	71	3.59	0.78	0.75	0.457
	무	202	3.51	0.72		
졸업 고교 계열	인문계열	199	3.50	0.71	-1.18	0.238
	실업계열	74	3.62	0.81		
성적	부진	53	3.50	0.85	0.12	0.884
	보통	169	3.53	0.70		
	우수	51	3.57	0.73		
전체		273	3.53	0.74		

p<.01 *p<.001

표 12.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경험

	구분	N	Mean	SD	t(F)	p
학년	1학년	94	3.64	0.90	12.94***	0.000
	2학년	94	3.16	1.08		
	3학년	85	2.82	1.25		
연령	18~20세	94	3.57	1.01	3.87***	0.000
	21세 이상	179	3.03	1.14		
주소지	대도시	55	3.11	1.26	0.36	0.700
	중소도시	163	3.26	1.09		
	농어촌	55	3.22	1.12		
사회생활 경험 유무	유	71	3.04	1.14	-1.55	0.123
	무	202	3.28	1.12		
졸업 고교 계열	인문계열	199	3.27	1.08	1.24	0.215
	실업계열	74	3.08	1.25		
성적	부진	53	3.11	1.09	1.41	0.245
	보통	169	3.31	1.14		
	우수	51	3.04	1.11		
전체		273	3.22	1.13		

***p<.001

학년별로는 학년이 낮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2.94$, $p < .001$). 연령별로는 18~20세 학생이 21세 이상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87$, $p < .001$).

표 13.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경험 횟수

구분	1~2회	3~5회	6~9회	없다	계	χ^2 (df)	p	
학년	1학년	80 (85.1)	8 (8.5)	1 (1.1)	5 (5.3)	94 (34.4)	46.54*** (6)	0.000
	2학년	63 (67.0)	11 (11.7)	2 (2.1)	18 (19.1)	94 (34.4)		
	3학년	33 (38.8)	14 (16.5)	2 (2.4)	36 (42.4)	85 (31.1)		
연령	18~20세	76 (80.9)	12 (12.8)	1 (1.1)	5 (5.3)	94 (34.4)	24.09*** (3)	0.000
	21세 이상	100 (55.9)	21 (11.7)	4 (2.2)	54 (30.2)	179 (65.6)		
주소지	대도시	36 (65.5)	5 (9.1)	-	14 (25.5)	55 (20.1)	3.18 (6)	0.786
	중소도시	106 (65.0)	19 (11.7)	4 (2.5)	34 (20.9)	163 (59.7)		
	농어촌	34 (61.8)	9 (16.4)	1 (1.8)	11 (20.0)	55 (20.1)		
사회생활 경험 유무	유	48 (67.6)	4 (5.6)	1 (1.4)	18 (25.4)	71 (26.0)	4.17 (3)	0.244
	무	128 (63.4)	29 (14.4)	4 (2.0)	41 (20.3)	202 (74.0)		
졸업 고교 계열	인문계열	136 (68.3)	22 (11.1)	3 (1.5)	38 (19.1)	199 (72.9)	4.93 (3)	0.177
	실업계열	40 (54.1)	11 (14.9)	2 (2.7)	21 (28.4)	74 (27.1)		
성적	부진	32 (60.4)	6 (11.3)	1 (1.9)	14 (26.4)	53 (19.4)	2.88 (6)	0.823
	보통	114 (67.5)	21 (12.4)	3 (1.8)	31 (18.3)	169 (61.9)		
	우수	30 (58.8)	6 (11.8)	1 (2.0)	14 (27.5)	51 (18.7)		
전체	176 (64.5)	33 (12.1)	5 (1.8)	59 (21.6)	273 (100.0)			

*** $p < .001$

3.3.2.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경험 횟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본 경험 횟수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이 학교생활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1~2회 있는 학생이 6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3~5회 12.1%, 6~9회 1.8% 순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학생은 21.6%를 차지하였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낮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1~2회 있었고, 학년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없었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46.54, p<.001$). 연령별로는 18~20세인 학생이 21세 이상인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1~2회 있었고, 21세 이상인 학생은 18~20세인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없었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4.09, p<.001$).

3.3.3.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희망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14>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37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보고 싶었던 적이 그다지 있지 않았으며, 학년과 연령, 주소지, 사회생활 경험 유무, 졸업 고교 계열, 그리고 성적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3.4. 상담받아 보고 싶은 내용

학생들이 상담을 받아 보고 싶어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5>와 같이 취업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 4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업성적 문제 29.3%, 진학, 편입 8.4%, 경제적 문제 5.9%, 이성 문제 3.7%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낮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적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고 싶어 하였고, 학년이 높은 학생일수록 취업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

표 14.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희망

	구분	N	Mean	SD	t(F)	p
학년	1학년	94	3.53	0.95	2.21	0.112
	2학년	94	3.24	1.03		
	3학년	85	3.33	0.89		
연령	18~20세	94	3.48	0.97	1.35	0.178
	21세 이상	179	3.31	0.96		
주소지	대도시	55	3.56	1.05	1.64	0.196
	중소도시	163	3.29	0.92		
	농어촌	55	3.40	1.01		
사회생활 경험 유무	유	71	3.39	0.93	0.25	0.805
	무	202	3.36	0.98		
졸업 고교 계열	인문계열	199	3.35	0.94	-0.51	0.610
	실업계열	74	3.42	1.03		
성적	부진	53	3.45	1.10	0.48	0.622
	보통	169	3.33	0.92		
	우수	51	3.43	0.96		
전체		273	3.37	0.97		

표 15. 상담받아 보고 싶은 내용

구분	이성 문제	친구 문제	가족 문제	학업 성적 문제	진학, 편입	취업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	외모 문제	계	χ^2 (df)	p	
학년	1학년	2 (2.1)	1 (1.1)	-	43 (45.7)	9 (9.6)	34 (36.2)	3 (3.2)	1 (1.1)	1 (1.1)	94 (34.4)	41.71*** (16)	0.000
	2학년	4 (4.3)	-	4 (4.3)	29 (30.9)	9 (9.6)	38 (40.4)	6 (6.4)	2 (2.1)	2 (2.1)	94 (34.4)		
	3학년	4 (4.7)	4 (4.7)	2 (2.4)	8 (9.4)	5 (5.9)	52 (61.2)	7 (8.2)	1 (1.2)	2 (2.4)	85 (31.1)		
연령	18~20세	3 (3.2)	1 (1.1)	-	40 (42.6)	9 (9.6)	35 (37.2)	4 (4.3)	1 (1.1)	1 (1.1)	94 (34.4)	15.88* (8)	0.044
	21세 이상	7 (3.9)	4 (2.2)	6 (3.4)	40 (22.3)	14 (7.8)	89 (49.7)	12 (6.7)	3 (1.7)	4 (2.2)	179 (65.6)		
주소 지	대도시	3 (5.5)	4 (7.3)	-	16 (29.1)	8 (14.5)	20 (36.4)	4 (7.3)	-	-	55 (20.1)	23.37 (16)	0.104
	중소도시	6 (3.7)	1 (0.6)	4 (2.5)	48 (29.4)	10 (6.1)	77 (47.2)	9 (5.5)	3 (1.8)	5 (3.1)	163 (59.7)		
	농어촌	1 (1.8)	-	2 (3.6)	16 (29.1)	5 (9.1)	27 (49.1)	3 (5.5)	1 (1.8)	-	55 (20.1)		
사회 생활 경험	유	2 (2.8)	3 (4.2)	3 (4.2)	19 (26.8)	5 (7.0)	32 (45.1)	6 (8.5)	-	1 (1.4)	71 (26.0)	8.02 (8)	0.432
	무	8 (4.0)	2 (1.0)	3 (1.5)	61 (30.2)	18 (8.9)	92 (45.5)	10 (5.0)	4 (2.0)	4 (2.0)	202 (74.0)		
졸업 고교 계열	인문계열	6 (3.0)	3 (1.5)	1 (0.5)	54 (27.1)	18 (9.0)	99 (49.7)	12 (6.0)	2 (1.0)	4 (2.0)	199 (72.9)	16.63* (8)	0.034
	실업계열	4 (5.4)	2 (2.7)	5 (6.8)	26 (35.1)	5 (6.8)	25 (33.8)	4 (5.4)	2 (2.7)	1 (1.4)	74 (27.1)		
성적	부진	-	-	1 (1.9)	24 (45.3)	8 (15.1)	18 (34.0)	1 (1.9)	-	1 (1.9)	53 (19.4)	36.64** (16)	0.002
	보통	5 (3.0)	4 (2.4)	3 (1.8)	53 (31.4)	12 (7.1)	75 (44.4)	10 (5.9)	3 (1.8)	4 (2.4)	169 (61.9)		
	우수	5 (9.8)	1 (2.0)	2 (3.9)	3 (5.9)	3 (5.9)	31 (60.8)	5 (9.8)	1 (2.0)	-	51 (18.7)		
전체	10 (3.7)	5 (1.8)	6 (2.2)	80 (29.3)	23 (8.4)	124 (45.4)	16 (5.9)	4 (1.5)	5 (1.8)	273 (100.0)			

*p<.05 **p<.01 ***p<.001

아 보고 싶어 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41.71$, $p<.001$). 연령별로는 18~20세인 학생이 21세 이상인 학생보다 학업성적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고 싶어 하였고, 21세 이상인 학생은 18~20세인 학생보다 취업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고 싶어 하였으며, 연령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5.88, p<.05$).

4. 총괄 및 고안

3.3.5. 상담시간의 규칙적 배정

상담시간의 규칙적 배정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6>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24로, 학생들은 상담시간의 규칙적 배정에 대해 그다지 높은 인식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낮은 학생일수록 상담시간의 규칙적 배정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72, p<.05$). 졸업 고교 계열별로는 실업계열 학생이 인문계열 학생보다 상담시간의 규칙적 배정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졸업 고교 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7, p<.05$).

학업에 대한 교수의 영향은 3.79로,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교수의 영향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에 대한 교수의 영향 수준은 ‘수업방법에 따라 학업성적에 영향을 받는다’가 4.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수의 전공 지식도는 그 과목 공부에 영향이 있다’ 4.16, ‘교수의 인간적인 자질에 따라 그 과목 공부에 영향이 있다’ 3.88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의 외모(이미지)에 따라 그 과목 공부에 영향이 있다’가 2.8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배⁹⁾의 연구에서 ‘교사의 인간적 자질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고, ‘전문적 자질이 공부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외모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연구대상자가 배⁹⁾의 연구는 고등학생인 반면 본 연

표 16. 상담시간의 규칙적 배정

	구분	N	Mean	SD	t(F)	p
학년	1학년	94	3.49	0.89	4.72*	0.010
	2학년	94	3.15	1.08		
	3학년	85	3.07	0.96		
연령	18~20세	94	3.40	0.93	1.97	0.050
	21세 이상	179	3.16	1.02		
주소지	대도시	55	3.42	0.99	1.10	0.335
	중소도시	163	3.20	1.01		
	농어촌	55	3.18	0.94		
사회생활 경험 유무	유	71	3.18	0.99	-0.58	0.564
	무	202	3.26	1.00		
졸업 고교 계열	인문계열	199	3.16	1.00	-2.37*	0.019
	실업계열	74	3.47	0.95		
성적	부진	53	3.06	1.13	1.23	0.293
	보통	169	3.30	0.94		
	우수	51	3.24	0.99		
전체		273	3.24	0.99		

*p<.05

구는 더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두 연구에서 '교수의 외모'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학기 처음에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가 교사와 여러 차례 대면하다 보면 근접성에 의한 친밀감이 생겨, 나중에는 외모가 문제 되지 않기에⁹⁾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대학의 교수는 학업에 대한 교수의 영향이 높음을 알고 과목별 효과적인 수업방법으로 더욱 전문화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성적 상위권이 자신감 부여에 미치는 영향은 4.41로, 학생들은 학교성적이 상위권이면 자신감이 생겨 좋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배⁹⁾의 연구에서 '상위권 학교성적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4.08과 비슷한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와 배⁹⁾의 연구 모두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학창시절의 성적은 학생에게 있어서 대학진학, 취업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대학의 교수는 자신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심리적인 압박감 등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자신감을⁹⁾ 높여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학교성적 하위권이 자신감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3.37로, 학생들은 '학교성적이 하위권이면 기가 죽고 자신감이 없어질 것이다'에 대해 그다지 높은 인식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배⁹⁾의 연구에서 '하위권 학업성적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3.09와 비슷한 결과이다. 이는 최근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며, 학업성적과 행복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되며,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평가하는 어른들의 사고에 대한 반항심리에서⁹⁾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도 생각된다.

학업성적 향상 공부 방법 습득 정도는 2.83으

로,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향상되는 공부 방법을 그다지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학업성적이 향상되는 공부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는 치위생과의 교육내용이 초·중·고 학창시절 접해보지 못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경우 다른 학생보다 학습경험이 많아서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현재보다 학업성적 향상 희망 정도는 4.63으로, 학생들은 현재보다 학업성적이 더 좋아지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자인 치위생과 학생의 경우 치과위생사로서의 취업을 위하여 치과위생사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대학의 교과목이 국가시험 과목과 많은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 정도는 3.23으로, 학생들은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 그다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 대부분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있어서 비교적 생활이 자유롭고, 부모로부터의 간섭이 적은 환경에 놓여 있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상담의 효과는 3.53으로, 학생들은 상담의 효과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이, 연령별로는 18~20세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상담의 효과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다.

상담의 효과 수준은 '상담은 향후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된다'가 3.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는다면 학업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 3.71, '상담은 전공에 대한 자신감 고취에 도움이 된다' 3.57, '상담은 국가시험 대비에 도움이 된다' 3.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은 대학에 대한 자부심 확립에 도움이 된다'가 3.2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배⁹⁾의 연구에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이 학업성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 3.66, '상담이 학업성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 3.40, '상담이 학교생활(성적/이성)에 미치는 영향' 3.27로, 본 연구에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교수는 학생과의 상담 시 학생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공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상담이 향후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진학보다는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수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경험은 3.22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그다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2회 있는 학생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배⁹⁾의 연구에서 상담 경험이 없는 학생과 1회 이상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각각 47.7%와 50.3%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조금 더 상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로는 학년이 낮은 학생일수록, 연령별로는 18~20세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다. 이는 대학상담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희망은 3.37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보고 싶었던 적이 그다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배⁹⁾의 연구에서 '학교생활(성적/이성)에 대한 상담희망' 2.96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인 대학생의 경우 배⁹⁾의 연구대상자인 고등학생보다 낫선 환경에서의 대학생활에 놓여 있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며, 상담희망 정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상담에 대한 지난날의

결과가 상담학 또는 심리학 등에 대한 전문적인 또는 기초적인 지식이나, 경험 없이 실시되었고, 또한 예방차원보다는 문제가 생긴 후, 처벌에 따른 상담이 실시되어 왔기 때문으로 생각되며⁹⁾,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는 훌륭한 상담기법보다는 얼마만큼 진실하게 내담자에게 관심 있는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며, 신용과 신뢰감을 갖게 하는 친절과 매력을 가져야 하는데¹⁶⁾,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상담에 앞서 학생과 교수와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교수는 일반적인 상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상담은 문제 학생이나 부적응 학생들만이 대상이 아니라 전 학생이 대상이 되어야 함¹⁷⁾을 홍보해야 한다.

학생들이 상담을 받아 보고 싶어 하는 내용은 취업 문제가 4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업성적 문제 29.3%, 진학, 편입 8.4%, 경제적 문제 5.9%, 이성 문제 3.7% 순으로 나타났는데, 배⁹⁾의 연구에서 장래 문제가 43.3%, 학업성적 문제 32.3%, 친구 문제 6.1%, 이성 문제 5.5% 등, 하¹⁷⁾의 연구에서 진로(취업, 진학), 학업 및 성적, 교내생활, 가족 및 이성 문제 순으로 분석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또한 심¹⁸⁾의 연구에서 대학생생활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 중 학업 문제 57%, 장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준비 50.9%로 높게 나타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장래에 대하여 두려움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에⁹⁾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한 직업지도를 통하여 학생이 앞으로 선택할 직업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상담이 필요하다¹⁷⁾.

학업성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상담을 통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취업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국가고시 면허 취득에 도움을 주어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년별로는 학년이 낮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적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고 싶어 하였고, 학년이 높은 학생일수록 취업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고 싶어 하였다. 교수는 학생 상담 시 학년에 맞는 적절한 주제로 상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상담시간의 규칙적 배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3.24로, 학생들은 상담시간의 규칙적 배정에 대해 그다지 높은 인식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상담시간을 규칙적으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학생이 상담을 희망할 때 자유롭게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 자신감 향상에 영향을 주는 학업성적 향상을 위하여 상담자인 대학의 교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과목별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연구·실행해야 하며, 학생과의 상담 시 학생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공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고,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상담자는 진실한 태도로 친절하게 상담에 임해야 하며, 상담의 대상자는 문제가 아닌 일반 학생임을 널리 홍보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개인상담, E-mail을 통한 상담¹⁷⁾ 방법 등 상담 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학생이 상담을 희망할 때 자유롭게 상담을 할 수 있는 대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일부 대학의 치위생과 재학생에 국한시켰으므로 모든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좀 더 폭넓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해야 하며,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상담 방법에 대한 연구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도구 개발 관련 연구, 상담만족도 연구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에 위치한 대학의 1~3학년 재학생 2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학업에 대한 교수의 영향은 3.79로 높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에 대한 교수의 영향 수준은 '수업 방법에 따라 학업성적에 영향을 받는다'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학교성적 상위권이 자신감 부여에 미치는 영향은 4.41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성적 하위권이 자신감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3.37로 그다지 높은 인식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업성적 향상 공부 방법 습득 정도는 2.83,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 정도는 3.23으로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현재보다 학업성적 향상 희망 정도는 4.63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상담의 효과는 3.53으로 높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의 효과 수준은 '상담은 향후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된다'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경험은 3.22로 그다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경험은 1~2회 있는 학생이 64.5%로 가장 많았다.
6.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희망은 3.37로 그다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7. 학생들이 상담을 받아 보고 싶어 하는 내용은 취업 문제가 4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업성적 문제 29.3%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낮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적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고 싶어 하였으며, 학년이 높은 학생일수록 취업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고 싶어 하였다.
8. 상담시간의 규칙적 배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3.24로, 학생들은 상담시간의 규칙적 배정에 대해 그다지 높은 인식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인 대학의 교수는 상담 시 학생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공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진실한 태도로 친절하게 상담에 임해야 한다. 또한 상담의 대상자는 문제아가 아닌 일반 학생임을 널리 홍보하고, 학생이 상담을 희망할 때 자유롭게 상담을 할 수 있는 대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1. 이재창. 대학에서의 상담활동의 목적과 기능: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의 현황과 문제. 서울:전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장협의회;1993:1-16.
2. 성환재. 대학생의 집단상담이 자아실현성과 적응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대학상담연구 1996; 7(1):161-180.
3. 이재창. 대학상담의 과제와 상담자의 역할. 홍익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2001;14:1-38.
4. 이현림. 카운슬링의 실존주의적 접근. 영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연구 1981;13(1):59-68.
5. 김계현, 김인규, 민경화. 2000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 서울: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2000:1-132.
6. 김은산, 김경창, 이시은. 1999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연구. 홍익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2000;(13):77-109.
7. 박일순, 이선희.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8;8(4):249-262.
8. 정원식, 박성수, 김창대. 카운슬링의 원리. 서울:교육과학사;1999:1-802.
9. 배원식. 고등학생의 상담 필요성 인식도 조사에 관한 연구. 천안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0. 이혜성. 중·고·대학에서의 전문적 상담현황.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활연구 1994;12:69-84.
11. 김지현, 주은선. 대학생의 관점에서 본 “상담관계(Therapeutic Relationship)” 기대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02;14(4):789-804.
12. 류경희. 대학에서 지역사회에 청소년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 상담 실태 및 서비스 요구도 조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2;20(4):37-52.

13. 곽준규. 대학에서의 학생지도 방향.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연구 1988;23(1):90-97.
14. 설기문. 우리나라 대학상담의 이론적 모형.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활연구 1993;11:25-52.
15. 이춘선. 치과위생사가 임상활동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 분석연구. 동남보건대학 논문집 1998;(2):151-160.
16. 박애선.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감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생활상담실 1987;9:1-15.
17. 하재정. 상담지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장안대학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2002;11:35-59.
18. 심향숙. 타지역 출신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counseling o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Sun-Hee Lee

Dept. of Dental Hygiene, Dongu College

Key words : college counseling, counsel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about the necessity and effects of counseling.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73 sophomores, juniors and seniors at a college located in a rural community.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 13.0 program.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y gave a mean of 3.53 when they were asked about the effects of counseling, which indicated that they had a high opinion on that.
2. They didn't receive counseling often, as they got a mean of 3.22. The largest group of the students who accounted for 64.5 percent received counseling once or twice.
3. They didn't hope to take a lot of counseling on school life. They gave a mean of 3.37 to that.
4. They wanted to receive counseling on employment the most(45.4%), followed by academic standing(29.3%).

Counselors should inform students of how to study to boost academic achievement when they provide counseling, and they should treat them with sincerity. In addition, students should be advised that not only specific students but everybody are eligible for counseling.